



사진출처 · wikipedia

자료 특강노트

# 성경적 직분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및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성경에는 이러한 직분의 의미와 변화 양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신약시대에 삼중 직분을 수행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직분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강화구 목사

fyc1896.org  
hgk90@hotmail.com

제일영도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성경 내러티브 읽기」 등이 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현대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역사를 통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관점만 살피기로 한다.

## 구약성경의 직분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소위 전통적인 의미에서 직분은 출애굽 세대로부터 나타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고(출 4:29),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가 함께했다(출 24:1-18).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자신의 짐을 나눠서 질 직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출 18:13-27). 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핵심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었으며(레 8~10장), 선지자의 직분도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다(창 20:7, 신 18:18).

### 1\_ 직분의 시작

#### ① 제사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동산은 지성소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성소와도 같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통치권을 행사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통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하신 것이다. 아담은 작은 왕으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땅을 경작함으로 왕의 권한을 행사했다.

#### ② 직분자로 부름받은 족장들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은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의 때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창 20:7)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은 분명 아브라함을 이방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셨다.

또한 족장들은 직분이 분화되기 이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이자 족장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암시한다.

### 2\_ 구약의 직분들

큰 틀에서 구약에서 언급해야 할 직분은 기름을 부어 세운 특별한 직분들이다.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직분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삼으셨다.





사진제공 · 강화구

## ❶ 왕

열방의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셨다.

## ❷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직분으로서의 선지자 제도가 시작된 것은 사무엘 시대였다. 그는 선지자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선지자 계보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 선지자는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왕과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예언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이는 전통적인 예언의 의미를 넘어선다. 선지자가 말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모두 이미 과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반영한 것이

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말씀이 예견하고 있는 미래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선지자로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다면, 구약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셨다(산상수훈).

## ❸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심으로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기본직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드리며 중재하는 역할이다. 즉, 타락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사장의 근본 직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이에서 거주할 때 그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되 일시적으로 죄를 속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는 참된 대제사장이 오시길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무죄하신 분이로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직분자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뜻한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즉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뜻하고, 예수께서 바로 이 삼중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뜻이다.

### 1. 왕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과 당신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또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자를 이기신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막 10:45).

### 2.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

예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신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마땅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화목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부르심이다(고후 5:18-21).

## 그리스도인은

##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 동일하게 감당할 은혜와

##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중직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모두 완성하셨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삼중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된다.



사진제공: 강화구

### 3\_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 자체이시다(요 1:1-2). 구약의 선지자가 행했던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뜻을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다. 따라서 구약적 의미로서의 선지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셈이다.

### 직분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삼중직을 통합하시고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을 동일하게 감당할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된다. 구약 시대에는 삼중직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었다(사울, 웃시아 등).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모두 완성하셨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삼중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왕인 마귀를 대적한다. 마지막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고 보좌 앞에서 중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경고해야 한다. ❶